

보도자료



대 법 원
Supreme Court of Korea

담당부서

사법정책실

담당자

사법정책심의관 정재현
(☎3480-1970)

공보관실 ☎ 3480-1451

대법원장 다큐멘터리 영화 ‘달팽이의 별’ 관람 『사회적 약자에 대한 후견적 배려와 편견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사법의 역할 강조』

-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 및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법관 및 직원들은 2012. 3. 14. 이승준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‘달팽이의 별’ 시사회를 관람함
- 취임 이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후견적 배려와 차별과 편견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사법의 역할을 강조해 온 양승태 대법원장은, 장애인 부부의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고 삶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보고, 시사회 참여를 흔쾌히 수락함
- 이 날 시사회에 함께 참여한 판사 및 법원 직원들은 장애인 부부의 애틋한 사랑과 잔잔한 일상을 담은 이 영화를 통해 ‘삶의 가치를 되짚어 보면서, 편견과 차별 없는 함께 하는 사회의 의미’에 공감함
- 최근 장애인의 국선변호 신청권 강화, 시각장애인 판사의 탄생 등, 사법부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

1.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

-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 및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법관 및 직원들은 2012. 3. 14. 저녁 대법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다큐멘터리 영화 ‘달팽이의 별’ 시사회에 참여함
- 시청각 중복장애인과 척추장애인 부부의 애틋하고 잔잔한 일상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다룬 이 영화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따뜻하고 넉넉한 삶의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영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

2. 의의

- 본 행사는, 사회적 약자에 대한 후견적 배려가 사법부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해 온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러한 사법부의 지향점을 판사들을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공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
- 사법부는 최근 국선변호인 신청과 관련한 예규를 개정하여 장애인의 사법참여권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후견적 배려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, 시각장애인 판사를 임용하는 등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행보를 지속하고 있음